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푸노의 칸델라리아 축제와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극
- 억압과 소외에서 국가를 넘어 세계를 향한
주체자로서의 해방과 공존의 몸짓

이영미

푸노(Puno)는 지리적으로 페루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해발 약 3900미터의 고지에 있는 고산도시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티티카카 호수를 품에 안은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티티카카 호수에는 한국의 갈대와 흡사한 토토라(Totora)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떠있는 작은 섬들인 우로스 섬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안데스의 고산도시 푸노의 칸델라리아(Candelaria) 축제는 브라질의 리오 축제, 볼리비아의 오루로 축제와 비교되는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축제 중의 하나이다. 푸노의 수호 여신인 동정녀 칸델라리아를 향해 숭양심을 표현하는 이 축제는 2003년 페루의 문화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페루의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인 2014년 11월 27일 칸델라리아 축제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푸노의 지방정부는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을 특별한 푸노 축제의 기간으로 선포하였고, 칸델라리아 축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푸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동정녀 칸델라리아를 ‘마미타 칸델라리아’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 칸델라리아’



칸델라리아 축제(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NcHRkjsr_Q)

라는 의미이고, 푸노 사람들에게 동정녀 칸델라리아는 자신들의 어머니로서 항상 함께 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페루에서 가장 소외 받아왔던 지역 중의 하나인 푸노, 그리고 그곳의 지방축제인 칸델라리아 축제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특히, 푸노에 살고 있는 아이마라와 케추아 원주민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페루에서 푸노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재로 인해 받아왔던 억압과 소외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와 세계를 향한 작은 문을 쟁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으로서, 푸노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페루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소외와 억압을 감수하면서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푸노 사람들의 약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는 빈곤층에 속하고, 그 중에서 약 30퍼센트의 사람들은 절대빈곤층으로 고단한 삶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면이다.

우선, 칸델라리아 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 그리고 소외와 억압을 풀어내는 해방구로서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동정녀 칸텔라리아의 기원과 관련된 민간설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동정녀 칸텔라리아는 푸노 사람들이 성스러운 호수로 여기고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티티카카 호수는 잉카제국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망코 카팍(Manco Capac)과 마마 오크요(Mama Ocllo)의 탄생지이기에, 푸노 사람들에게 티티카카 호수는 잉카제국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지닌 티티카카 호수에서 등장한 동정녀 칸텔라리아는 18세기 후반부터 푸노 사람들에게 수호 여신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당시 푸노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투팍 아마루가 지배하고 있었다. 푸노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삼포냐를 연주한 사람들과 함께 동정녀 칸텔라리아를 경배하며 종교적인 행진을 하였다. 이런 대규모 행진을 당시의 지배자들은 반란으로 인식하여 푸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푸노의 지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때부터 푸노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지배자로부터 해방시켜준 동정녀 칸텔라리아를 푸노를 지켜주는 수호 여신인 동시에 어머니로 받들게 되었으며, 칸텔라리아 축제의 기원에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지배세력에 맞서는 피지배자의 저항의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또한 이 저항의 힘 중심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어머니인 동정녀 칸텔라리아가 자리하고 있기에, 푸노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고된 일상생활을 지탱할 수 있었다.

‘칸텔라리아 축제를 위해서 일 년을 버틴다’라는 구절은 푸노 사람들과 칸텔라리아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단지 일 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 자체를 버터내는 것이고, 그 고단한 일상은 칸텔라리아 축제를 통해서 보상받고 인정받으면서 그들이 받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차별이 일시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단 며칠간의 축제를 위해서 일 년이라는 힘에 겨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버터내야만 하는 차별적 일상은 어떤 것일까?

먼저, 사회 문화적 차별에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푸노는 페루 내에서도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이에 많은 푸노 사람들은 원주민의 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마마니(Mamani), 키스페(Quispe), 콘도리(Condori) 등이다. 페루사회에서 원주민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회 문화적 차별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푸노 사람들은 원주민 성을 마치 스페인 사람의 성과 비슷하게 바꾸는 경우를 만날 수 있다. 사회적인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들은 진짜 얼굴을 숨기고 사회가 강요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가면은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전략으로 페루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둘째로, 기성세대인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세대의 젊은이들이 푸노의 언어인 아이마라 어와 케추아어를 배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저발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푸노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했을 때는 자신들의 출신지를 숨기고 부정하며,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평판을 가진 지역으로 출생지를 옮기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생활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푸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유는 타집단 혹은 타문화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이라는 긍정적 수용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푸노 사람으로서 주체의 자리에 놓기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인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인 차별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칸텔라리아 축제기간 동안에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대상의 위치에 놓을 필요가 없으며, 이들 자체로서 오롯이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한다. 축제 기간 동안에 푸노 사람들은 푸노 사람으로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또 자신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벗어내려 몸부림치는 것이다. 페루 내의 다양한 지역과 외국에서 축제를 보러온 관광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푸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갈망했던 사회적 인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지칠 줄 모르게 춤추며 행진하는 것이다.



전통의상을 입은 칸텔라리아 축제 참가자들

이들에게 춤과 노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고단한 일상과의 한시적 단절인 동시에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드러내면서 ‘푸노 사람다움’을 확인하고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푸노 사람다움이 대상으로서의 타인다움을 극복하고, 사회 문화적 인정을 확보한 푸노 사람다움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칸텔라리아 축제이다. 푸노 사람들이 칸텔라리아 축제를 위해 일 년을 살아내는 궁극적인 근거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닌 주체인 푸노 사람으로서의 푸노 사람다움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27일 푸노의 칸텔라리아 축제는 페루라는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이 푸노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대상이 아닌 주체인 푸노 사람으로서의 종교적·사회문화적 재생산 방식이 축제라는 장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방식의 발현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 페루사회 속에서 억압되었던 푸노와 푸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푸노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대화와 조화로움의 장 속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칸텔라리아 축제는 더 이상 억압과 소외를 일시적으로 부정하는 푸노 사람들의 해방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부정은 기존의 억압과 소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온전한 주체자로서 다름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첫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칸텔라리아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가야 할 세계문화유산이다.

이영미 —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연구원. 페루 푸노 국립알티플라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역임